

것이 정석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불신에서 비롯한 온갖 전형의 규칙과 방법이 횡행하였으나 이제는 대학이 결과를 온전하게 책임지도록 자율성을 허용한다면 솔직히 문 닫아야 할 대학은 도태하게 하고 앞서가는 대학은 쑥쑥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발전의 초석이 되는 원리다.

뭐니뭐나해도, 궁극적으로 모든 교육의 뿌리는 가정교육으로 귀착한다. 부모, 특히 어머니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첨경은 어머니의 각성이다. 어머니의 재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사회의 관점에서는 직업별 특권의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개인은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은 영원한 화두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신 동 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의를 숭상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왔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이 무색하도록 인성이 타락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제라도 선비사상의 정신적 갑주로 무장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명문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정마다 가훈을 중시하고 명심보감이 될 글귀로써 귀감을 삼아 도의를 함양하며 보편적 가정교육의 지침을 삼았다. 요즈음 가정교육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높은 점수만 따면 된다는 풍조와 국민윤리교육이 있지만 그 역할이 미흡하여 사회 병리 현상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하튼 건전한 인성교육의 부재로 사회의 지도자까지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개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나라에도 큰 해악을 끼치는 일 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 병리현상을 치유할 묘방과 묘책을 찾는 데는 인간 존재의 품격을 높이는 교육이 기본이다. 그래서 교양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도의교육과 국제사회의 일익을 맡을 인성교육은 대학의 몫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개인의 명예나 이기적인 출세가 아닌 건전한 인륜과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인간, 곧 진취적인 교양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서도 창의적 사고와 건전한 태도, 상식을 갖춘 제대로 된 인품을 기대하므로 대학교육에 있어 인성교육은 중요한 의무가 되고 있다.

2006년도 메가트렌드 코리아가 제시한 20대 메가트렌드 중 IT가 대신 할 수 없는 인간 능력의 가치 증가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금세기 산업화 사회가 추구하는 과학기술 못지않게 인성교육도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미국의 저명대학에서는 MBA 과정에서도 윤리 강좌가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플라톤, 칸트, 밀 등의 저서를 읽고, 기업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이것은 윤리교육으로 무장한 MBA 출신이어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감을 다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엘리트는 국제화의 능력과 전문지식, 조직 역량, 가치관을 존중하고 팀워크에 유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인재가 곧 조직체나 기업에 소중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근 초일류기업들이 인재 선발과정에서 ‘평가센터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중심의 키워드는 역량이라고 한다.

즉 이력서상으로 나타나는 우수한 인재보다, 요컨대 조직문화에 적합한 인성을 갖춘 인재의 선발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능력 못지않게 ‘조직문화에 적합한 인성과 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 알맞은 인간형이 경쟁에 뛰어난 개인주의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 회장은 인재 선발의 세 가지 기준을 첫째는 성실성, 둘째는 열정, 셋째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실성이다. 또 그는 여러 강의에서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개인이 가지는 ‘인간성’이나 ‘인정스러움’을 강조했는데 세계의 부자가 되는데도 능력만으로 남을 움직일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그만큼 수많은 나라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진화를 겨루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건전한 시민의식과 국가경제의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냉엄한 국제경쟁체제 하에서는 기술력과 경영도 중요하지만 인성, 즉 건전한 교양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 경쟁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제라도 교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데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국내 기업에서도 기업의 성장은 인재가 필수요건이라고 하나 대학에서 배출된 인물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재벌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도덕 없는 기업의 사례이며, 기업체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 관련 기밀 문서나 조선공업의 핵심 도면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은 국가의 신인도를 추락시키며, 그로 말미암아 기업이 하루 아침에 파경에 이르게 되는 사건 등이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청소년연구소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한국이 50.4%로 일본 33%, 중국 27%, 미국 21.1%보다 훨씬 많았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는 답도 한국은 23.3%로 미국 21.2%, 일본 13.4%, 중국 5.6%보다 높았다. 이 조사 결과가 우리 젊은이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성교육에 허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교육이념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진리의 탐구와 인격도야, 겨레와 인류에 이바지할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다. 그 이념의 백미는 학문과 인성교육이다. 그렇다면 대학 교육에서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인성교육을 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배우며 바르게 살고 사랑과 봉사 때로는 의로운 일에 희생정신을 발휘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주객이 따로 없으며 특히 교수와 학생은 이 목표를 위해 절차탁마하여야 한다.

교수는 일거일동이 학생에게 사표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설사 완벽한 본을 못 보일지라도 지도자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을 논함에 있어 각자의 경륜과 지식 그리고 규범은 시대와 나라와 문화권 그리고 환경에 따라 같지는 않겠으나, 분명한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상식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재직시절 학생과의 대화는 자주 하는 편이었다. 신입생 학년 초 동아리 각 모임이나 야외모임에서 들려준 것은 바른 예절을 지켜야 할 소양, 특히 사회생활의 첫 발을 디딜 졸업 예정자에게 기본적인 대화로 사회생활에 요긴한 것은 투명한 금전관리, 약속시간을 잘 지키는 것, 계획된 행동과 시간의 생활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교수나 어른께 공손한 행동, 직장 상사의 경험담 경청, 동료 간 선의의 경쟁자라는 것을 명심하며 건전한 국가관 등을 예사로운 말로써 강조한 대목이었다. 한편 기업체가 평가한 면접 항목과 태도, 발표 요령 그리고 관리자가 가질 인화 10개 조건을 들려주었다.

물론 교육자마다 인간교육의 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국이 빠진 인간교육을 비롯하여 인격 없는 교육과 인간성 없는 과학을 멀리하며,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며, 폐어플레이 정신이 투철한 사람, 두려울 때도 자신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배신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는 사람 등 21세기 주역이 될 인물 양성을 위한 지혜로운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이에 더하여 사회지도자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역할이 있다.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명심해야 할 한 구절, 즉 송나라 나대경(羅大經)이 엮은 학림옥로 학사(鶴林玉露 學仕)에 나오는 〈學不必博, 要之有用; 仕不必達, 要之無愧〉(학불필박 요지유용; 사불필달 요지무괴)라는 말이다. 이것은 '배움은 반드시 넓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쓸모가 있어야 하며 벼슬은 반드시 높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한다' 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은 개인이나 국가에 큰 해악이 됨을 알고 진정 사람답게 사는 이치로 정문일침(頂門一鍼)을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없다고 한다. 학생은 있어도 진정한 제자는 없고 선생은 교장으로 전락되었다고 하며 교수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이 인성교육의 도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인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성은 개인과 가정과 조직체와 국가의 품격이 된다.